



# 송중기 “나쁜놈 혼내주는 사회 비판 메시지 공감”

배우 송중기(36)가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로 얻은 좋은 기운을 tvN 드라마 ‘빈센조’로 이어갈 수 있을까.  
 올 상반기 tvN ‘텐트폴’(홍형 기대작) 작품으로 불리는 ‘빈센조’는 제작비 200억원과 송중기 주연, ‘열혈사제’ 등을 히트시킨 박재범 작가의 신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줄거리부터 독특하다.  
 송중기가 연기할 빈센조 까사노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로, 국내 베테랑 독종 변호사인 홍차영(전여빈 분)과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 퇴치에 나선다.

tvN ‘빈센조’ 20일 첫 방송… 흥행 기대  
 한국 건너온 이탈리아 마피아 변신  
 제작비 200억… 새로운 장르 드라마

15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송중기는 “요즘 뉴스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박재범 작가님께서 시놉시스를 주셨는데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공감됐다. 굉장히 새로운 장르, 하이클래스 장르”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어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매력이 없었을 텐데 그걸 유쾌하게 풀고 싶어하시는 지점이 나한테는 굉장히 속 시원한 탄산수 같이 다가왔다”며 “서사는 무겁고 깊지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드라마”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나쁜 놈보다 더 나쁘고 센 놈”이라며 “이탈리아에서만 즐겼던 살이었던 한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겪는 이질적인 것들에 외롭기도 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탈리아어 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쉬울 줄 알

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언어였다. 그래도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웃었다.  
 선한 눈망울을 지닌 송중기가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으로 변신한다는 데 의아해하는 팬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그는 “대중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다른 면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다. 나 역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봤고,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약함, 독함, 날카로움이 있어 그걸 빈센조에 투영하면 되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전여빈에 대해서도 “빈센조와 홍차영은 살아온 결이 극과 극이지만 둘 다 외로운 존재들이고 열정이 비슷하다. 교집합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된다”면서 “전여빈 씨를 보면서도 엄청난 배우가 나왔다고 생각했다”고 팀워크를 자랑했다.  
 전여빈 역시 “대본을 읽자마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다음 내용이 얼른 보고 싶었다”면서 “빈센조와 차영은 톰과 제리 같은 관계인데, 상생이라는 단어도 떠오른다. 송중기 선배님은 모든 걸 잡아주고 받아주고 끌어준다”고 화답했다.  
 천진난만한 인턴 변호사이지만 빈센조와 대립하는 구도의 장준우 역은 옥택연이 맡았다. 그는 “송중기, 전여빈 배우 모두 보석 느낌이 난다. 빈센조가 다이아몬드 드라마 홍차영은 흑진주”라며 “이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출은 ‘돈꽃’, ‘왕이 된 남자’ 등으로 힘 있고도 섬세한 연출력을 입증한 김희원 PD가 맡았다.  
 김 PD는 “주인공이 외국인이자 이방인이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스토리가 많다. 또 주연 세 명이 모두 선남선녀인데 그들을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작품”이라며 “박재범 작가님의 팬으로서 만나서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독특한 설정이지만 전체적인 드라마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신경 썼다”고 밝혔다.  
 ‘빈센조’에는 이외에도 유재명, 김여진, 곽동연, 조한철, 이항나, 최덕문, 리우진, 김형목, 양경원, 윤병희, 김실진, 임철수 등이 출연한다.  
 20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 다음달 개봉 영화 ‘미나리’, OST로 먼저 만난다

디지털앨범 발매… 4월 LP 앨범 선보여

다음달 3일 개봉하는 화제작 ‘미나리’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를 담은 디지털 앨범이 나왔다.  
 유통사 소니뮤직코리아는 미나리 OST 앨범 ‘미나리(오리지널 모션 픽처 사운드트랙)’이 발매됐다고 16일 밝혔다. 4월 중에는 LP로도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16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영화 ‘더 라스트 블랙 맨 인 샌프란시스코’, ‘카조니아’로 차세대 영화음악인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에밀 모세리가 작업했다.  
 미나리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은 “모세리가 보내준 곡을 듣고 작품의 의도를 완벽하게 포착해 낸 그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음악을 솔하게 들은 나머지 자연스럽게 영화의 세계관 안에 노래들이 녹아들고, 노래의 세계에는 영화가 담기게 됐다”고 말했다.  
 모세리 역시 정 감독이 대본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독려했으며 이번 앨범의 완성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소니뮤직은 전했다.  
 영화에서 ‘모니카’ 역을 맡은 한예리는 앞서 선공개된 타이틀곡 ‘레인 송(비의 노래)’을 직접 불렀다. 번역가 겸 작사가인 스테파니 흥과 모세리가 함께 작업해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를 완



성했다.  
 미나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르고 세계 영화상에서 60개 이상의 상을 받으면서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 화려한 고구려표 액션 안방 사로잡다

‘달이 뜨는 강’ 시작부터 9% 돌파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액션이 안방을 사로잡았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4분 방송한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첫 방송 시청률은 6.5%-9.4%를 기록했다.  
 첫 회에서는 고원표(이해영 분)의 모략으로 연왕후(김소현)와 은협(강하늘)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태왕을 꿈꾸던 어린 평강공주(허정은)는 어머니를 따라 순행에 나섰다. 어린 온달(서동현)과 함께 이불란사로 도망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구했으나 기억을 잃고 천주방 최고의 살수 염가진(김소현)으로 성장했다.  
 평강공주와 온달의 설화를 각색한 ‘달이 뜨는 강’은 평강을 ‘울보 공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태왕을 꿈꾸는 공주로, 온달을 ‘바보’에서 산속에서 자란 거칠지만 순수한 청년으로 변모시켰다.  
 전날 방송에서는 1인 2역을 소화해 낸 김소현의 연기가 단연 돋보였다.  
 김소현은 머리카락을 하나로 짚근 묶은 채 말을 타고 내려 전장에서 자신의 몸만 한 크기의 칼을 휘두르며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또 아역으로 데뷔한 그는 어린 평강의 어머니 연왕후 역까지 소화해내며 탄탄한 연기력을 뽐냈다.  
 나라와 백성을 수호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은협 장군을 연기한 강하늘의 카리스마 연기도 빛을 발했으며,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화려한 액션과 의상 등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고구려 평원왕을 연오의 감정에 휩싸여 왕후와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으로 그리는 등 실제와 다른 이야기로 전개했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